

대통합·탕평 인사... “지역 떠나 책임자”

잇따른 호남인사 증용 왜?

국무총리·비서실장 이어 靑 수석·법조계 요직 발탁 보수 정권 인사 불이익 해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내각·법조계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제와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 광주 출신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역시 나주 출신인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를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종석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영광 출신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장흥 출신이다.

애초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출신지를 달리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구심점인 비서실장에 모두 호남출신 인사를 기용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겸 대통령 정책특보에 임명된 이용섭 전 장관은 합평 출신이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역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가장 가까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청와대 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민경제자문위 부위원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모두 호남 출신 인사다.

비록 경제부총리는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할 대부분 자리를 호남 출신 인사가 차지하면서 끊임 없이 경제적 소외를 겪어온 호남에 기대와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 인사 증용은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광주 출신의 박군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박 국장의 임명에 대해 “호남 출신이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은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군택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까닭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지역을 떠나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 호남출신 인사를 증용하는 것은 대선 전 공약인 대통합·대통합 인사를 실천한 것이라 분석이다. 보수 정부 10년 가까이 호남 출신 인사들이 겪은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것이다. 참여 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호남출대론’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비롯된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이 같은 호남 인사 증용 경향이 향후 있을 장·차관 인사와 각 부처 주요 실국장 인사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호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제 ‘안정·개혁·실용’... 외교·안보 ‘파격’

문 대통령 인사 들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경제와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균형과 파격으로 요약된다는 평가다.

◇김동연-장하성-김광두, ‘안정·개혁·실용’ 조화=경제부총리 후보자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경제부처의 요직을 거졌기 때문에 거시적인 통찰력으로 경제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안정성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개혁성향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발탁했다. 장 실장은 과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만큼 경제력 집중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난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평가된다.

반면,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개혁적 보수 성향의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교수에 대해 “저와 다른 시각으로

정치경제를 바라본 분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 맞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용에 방점을 둔 선택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라인 외교 중시하면서 파격적 인사=우선 외교 부문뿐 아니라 안보실장 자리에도 군 출신이 아닌 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의 외교부장관 지명은 비외무고시 출신이자 여성이라는 점에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각각 임명, 개혁과 보수의 조화를 이뤘다는 해석을 낳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가가 호남...중앙일보 회장·주미대사 지내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발탁됐다. 대선 직후 문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파견될 만큼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국내외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99년 중앙일보 회장을 맡은 이후 세 계신문협회 회장으로 역임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임기를 마친 후 2006년 다시 중앙일보 회장에 취임한 뒤 2011년부터 JTBC 회장까지 겸임해오다 지난 3월 19일 대선 정국에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직을 사임했다.

대선 출마설도 나왔지만 “오랜 고민 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일축했다.

대선기간인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으로



부터 외교·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공개해 화제가 됐다. 호남과도 인연이 있다. 부친인 고 홍진기 전 내무부장관이 목포 출신인 김윤남씨와 결혼해 홍 특보를 낳았기 때문이다. 홍 전 내무부장관은 전주에서 판사로 있을 때 장녀를 얻어 ‘전라도에서 얻은 기쁨’이라는 의미로 ‘라희’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부인 신연군 여사와의 사이에 홍정도 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사장 등 2남1녀가 있다.

▲서울(68) ▲경기도 ▲서울대 전자공학 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산업공학석사·경제학박사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삼성코닝 부사장 ▲세계신문협회(WAN) 회장 ▲주미대사 ▲중앙일보·JTBC 회장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신임 헌재소장·법무부·검찰 인사 프로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세월호 7시간’ 질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난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부인 정선자씨와 2남.

▲전북 고창(57) ▲전남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합리적이고 엄정한 일처리

이금로 법무차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특임검사를 맡아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노력했다. 23일 동안 30여명의 인물을 40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이 있는 등 ‘속전속결’ 수사를 벌인 끝에 진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원만

하고 합리적이고, 엄정한 일처리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증평(51) ▲정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사시 30회(연수원 20기) ▲서울지검 동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전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를 벌인 끝에 진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원만

기업형 범죄 수사·정책 능력 겸비한 ‘팔방미인’

봉옥 대검차장

검문·온화하면서 소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기획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태광그룹 관련 비자금 수사 등을 맡아 기업형 범죄 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서울(52) ▲여의도고·서울대 ▲사시 29회(연수원 19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국정원 댓글 수사·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강골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 원지검 여주지검장으로 있던 2013년 말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해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변방을 전전했으나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

으며 전면에 섰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광주(56) ▲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시 33회 ▲대구지검 검사 ▲광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수원지검 여주지검장 ▲대구·대전고교 검사

수사·법무 행정 ‘베테랑’...11년만에 호남 출신

박군택 검찰국장

호남 출신으로 11년만에 요직 중의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수사과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처리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



다. 겸손한 것은 물론 고향 후배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역에 나가 배웅해주는 등

지중화 공사 구간 확정 공고 안내

장성군 장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지중화 확정지역 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지중화공사 목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한 장성군 관문지역 지중화로 경관 개선
- 지중화 확정지역**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56-19 ~ 단광리 489-3
-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17. 07 ~ '18. 01 (6개월간)
- 신중설고객 지중공급시행 기준일**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 기타 문의사항**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사 (☎ 061-390-6235)

지중화 확정지역 위치도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국가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안전망

매출채권보험

“사장님, 안심하고 거래하세요”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위임판매하고, 위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지급해주는 공적보장제도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의 4대 효과
판매위험 보장 | 대금관리유대 | 매출증대 | 거래처 1년간 모니터링

광주신용보험센터

062-607-9261~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光州日報

광공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